

1. 사 업 명: 2024학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2. 수행기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3. 연구주제: <중간공동체의 역사와 생태적 문화 변동 양상 연구>
4. 연구기간: 2024. 9.~2030. 8.

연구 목표	기후 재난과 각종 바이러스의 발병이 빈번해지면서 인간과 동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고기를 먹으며,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제 산업활동을 한다. 코로나-팬데믹을 겪은 인류가 이를 과학기술적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넥스트-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은 '생존'을 위한 '중간 전쟁'의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지구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특히 '동물'은 인간과 자원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인간이 지금까지의 문명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말 그대로 인간과 동물은 '공존'해 왔으며, 그 여정은 '중간공동체'의 역사이다. 본 연구는 인간-동물이 형성해 온 중간공동체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지금의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종의 생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중간공동체의 '미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는 지혜로운 인간, 곧 호모 사피엔스의 지혜를 인간과 동물의 '과거'와 '관계'에서부터 찾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과거뿐 아니라, '현대'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양상을 함께 분석한다. 인간-동물의 미래 지향을 적절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 및 권리 개념의 발전은 인간-동물의 관계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다르지만, 유사한 신경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동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향상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본 연구가 탐구하려는 '생태적 문화변동'의 한 영역이다. 인간과 동물은 상호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을 공유하는 생명체로서, 자연-문화의 이분법적인 영역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생태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간공동체로서 인간-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문화적 궤적을 살피면서, 일정한 패턴 및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더불어 현대의 인간-동물 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들을 유형화·분석하고, 현재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찾고, 나아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인간-동물의 관계 및 중간공동체의 철학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둔다.
기대 효과	1. 감염병,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사육동물 살처분 및 매장, 야생동물의 복원 및 멸종의 문제 등 인간-동물 관계망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2. 본 연구의 수행으로 집적될 한국형 인간-동물 관계 사례는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서 참고해야 할 동시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도 한국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사를 동물의 종류, 동물 관련 직업군, 대중의 동물 선호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료(史料)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동물 관계 이슈의 근본 원인과 현상의 특성을 구명하여 한국형 인간-동물 관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물 관련 정책과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인식의 개선 및 제도의 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관계성'에 천착하는 이 연구는 상호 관계의 역학을 드러냄으로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있어 대상 자체의 보

	호를 넘어 양자 관계의 정의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운동 및 꾸준한 성장 추세에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본 연구의 각종 성과물은 관련 직종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활동 영역에 맞춤형·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다. 5.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양 교과목을 창설·확장하여 인간-동물 담론에 관한 융합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성과물이 축적된 후에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 전공 학부에서 각각 융합 사고 함양을 위한 기초 전공 학습을 위한 유사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반려인의 증가 및 동물 관련 직종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본 연구의 성과물은 일반 대중과 진로 탐색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성과로 얻어진 정보와 지식은 미디어, 서적, 강의 활동, 문화기관의 전시 및 교육과 연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동물의 관계와 상호 인식의 지향점을 사회문화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인간-동물 관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의 원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의 문화콘텐츠와 유아에서 노년까지 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8. 인간-동물 관계와 관련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인간과 동물이 형성하는 '관계'에 집중하며, 그 관계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중간공동체로서 인간-동물의 '상생'과 '공존'의 방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하나는 중간공동체의 역사로서 인류가 동물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의미화하는 양상들을 살핀다. 이는 인간-동물 관계의 '서사'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문학(구술·기록된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 기록, 동물민속, 꿈해몽 등의 문화상징체계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인간의 동물에 관한 중별 인식의 특성을 찾고, 나아가 동물이 사회문화적으로 기호·상징화되는 패턴을 탐구한다. 한국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인간-동물 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 세계문학을 비교 대조하여 연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동물종이 지닌 생물학적 다양성이 인간의 인식과 사유체계에서 상징화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동물이 관계하고 존재하는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동물이 인식되고 다루어지는지도 방식도 비교 대조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현대의 인간-동물 관계의 양상도 함께 살핀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인간-동물 관계를 주제로 하는 현대문학 장르(운문과 산문), 참고할 기타 담화물로서 신문 기사, 각종 영상 콘텐츠 등이 수집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현대인들에게 동물이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고 소비되고 의미화되는지 동시대적 자료들을 통해 밝힘과 동시에, 인간-동물의 관계 변화가 인간-인간은 물론 인간-사회의 관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 인간-동물 생활보고서>라는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이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동물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반려인, 축산업인, 야생동물 보호·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구술 인터뷰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지금의 인간-동물 사이에서, 나아가 인간-인간,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동시대적·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암시하는 의미 및 초래할 효과를 예상하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인간-동물 관계의 과거·현재를 탐구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다루어야 하

	고, 그에 타당한 해석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에 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시도한다. 문학,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철학 등의 학제 간 복합 연구는 본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각각의 학문이 필요한 단계에 적절한 관점과 이론을 취할 것이다. 또한 융합 연구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종간공동체의 역사와 현재를 살피는 과정의 양방향에서 '인간-동물 관계'라는 주제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루고 축적하게 될 것이다. 자료가 방대하므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수많은 자료의 정리 및 분석에 정확함을 기함으로써, 본 연구가 양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할 만한 질적 연구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문 키워드	종간공동체, 인간-동물, 관계, 서사, 생태적 문화변동, 커뮤니케이션, 공존
영문 키워드	inter-speices, human-animal, relationship, narrative, ecological culture changes, communication, coexist